

광주·전남 주력산업 수출 부진...무역수지도 '빨간불'

8월 수출 전년비 23.4% 감소...무역수지 흑자 규모 20.2% 줄어 주력 수출국 중국 경기침체로 전남 올해 21억3500만 달러 적자

세계적인 경기둔화 흐름 속에 광주·전남지역 수출산업이 부진의 늪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수출 1위인 중국의 경기침체로 전남지역 주력 산업의 수출 전선에 위기가 계속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하고 있다. 심상치 않은 중국 경기 불안이 하반기 수출 상승세를 기대하던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3년 8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은 47억53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4% 감소했

다. 수입은 23.8% 감소한 42억99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억5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20.2% (5억 6900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전월(9억6600만 달러)에 비해서도 무려 53.0%나 줄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누계기준 수치를 봐도 지역 수출 전선의 위기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8월 말 누계 기준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대비 20.4% 감소한 372억500만 달러에 수입도 20.6% 줄어든 321억 2300만 달러로 나타나 불황형 흑자를 보였다. 올해

까지 무역수지는 50억8200만 달러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 동월(62억9300만 달러)에 비해 19.2%나 감소했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무역흑자 규모가 급감한 것은 전남지역 주력 산업계의 수출이 부진이 그 배경에 있다.

광주는 수출이 15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4% 증가, 수입은 36.9% 감소한 6억2000만 달러로 9억4000만 달러 무역흑자를 보였다.

이와 달리 전남은 전년 대비 수출이 31.4%나 감소한 31억9300만 달러에 머물렀다. 수입은 21.0% 줄어든 36억79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억8600만 달러 적자를 봤다.

전남은 최근 무역수지 적자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2월(2억7800만 달러 흑자)과 7월(1500만 달러 흑자) 두 차례를 제외하곤, ▲1월 3억3500만 달러 ▲3월 6억4500만 달러 ▲4월 1억4000만 달러 ▲5월 5억1700만 달러 ▲6월 3억500만 달러 ▲8월 4억8600만 달러 등 모두 적자를 봤다. 8월 누계 기준 총 21억35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의 수출은 지난달 석유제품(-28.4%)과 화공품(-11.6%), 철강제품(-76.2%), 수송장비(-47.6%), 기계류(-23.7%) 등 전반적인 감소를 보였다. 이 중 석유제품과 화공품, 철강 등 전남 주력 산업이라 일컫는 품목들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 수요가 줄면서 철강과 동광 등 전남의 주요 품목 수출이 감소, 화

공품과 석유제품 등 각종 중간재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중국의 경기 불안이 계속될 경우 지역 수출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회복이 지연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면서 전남의 중국 수출이 연중 20% 이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수출업계 관계자는 "철광과 동광, 각종 중간재 등 전남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많은데 중국 내 부동산·건설경기 침체로 이들 품목의 수출이 침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18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위해 광주시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을 찾은 양동구(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소상공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광주국세청, 경제 활력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온누리 상품권으로 농산물 구매 무등시장상인회와 현장 간담회도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18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광주시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물가와 소비침체 등 각종 복합적인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국세청과 무등시장은 2011년 7월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다.

양동구 청장을 비롯해 행사에 참여한 광주국세청 직원들은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쌀, 직원 간식 등

농산물을 구매했다.

또 영세상인들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 및 손택스 등으로 부가세와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그림으로 도식화한 책자도 제공했다.

이밖에 무등시장상인회 임원진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상인들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양동구 청장은 "최근 큰 어려움 속에서도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내실이 있는 세정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현장소통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축협 신규직원 공채 25일까지 온라인 접수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신규직원 공개 채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하반기 농·축협 직원 1천 100명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연령, 학력, 성별 등에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가공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는 우대한다.

지원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11월 5일 인·적성 및 직무능력 검사, 11월 17일 면접 등을 거쳐 11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 '최우수'

중기부, 전국 19개 TP 대상 리더십 및 경영전략 부문 우수



이다.

또 입주기업을 포함한 역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장단계와 기업규모에 부합하는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수요기반의 전주기 지원과 성과관리 등 기업지원을 위한 성공적 수행체계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사진)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테크노파크 2023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최우수(S) 등급을 획득했다.

18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경영실적평가는 전국 19개 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된다.

전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광주 TP는 ▲리더십 및 경영전략 ▲입주기업 성장관리 ▲중점추진분야 기업지원 ▲거점역량 ▲안전·보건관리 등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무엇보다 리더십 및 경영전략 부문은 13점 만점에 12.8점을 획득하는 등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성장동력 기반확보와 투자유치 기업유성 등 성과를 비롯해 경영혁신 결과 조직 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밖에 단계별 ESG 경영전략수립 실행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45001) 획득 등 리더십을 발휘해온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구축했다.

지역 투자 활성화 펀드와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투자유치 효과를 거뒀고, 지역혁신 유관기관과의 선순환적인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얻는데 기여했다.

김영집 원장은 "지난 11월 취임 이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와 경영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혁신에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해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유가 상승에 항공권 유류할증료 한달새 3단계 올라

국제선 최고 22만6800원

원유 공급 차질 우려 속에 국제유가가 상승을 거듭하면서 오는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9월보다 3단계 뛰어오른 '14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두 달 연속 한 번에 3단계씩 오르며 여행객들의 항공권 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경우 10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3만800~22만6800원이다. 이달 적용된 2만800~16만3800원에서 많게는 6만원 넘게 올랐다.

아시아항공은 편도 기준 3만2000~17만 7100원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 역시 9월에 적용된 2만3300~13만4600원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됐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74.72 (-26.56)
↓ 코스닥	891.29 (-7.74)
↑ 금리(국고채 3년)	3.891 (+0.041)
↓ 환율(USD)	1324.40 (-1.50)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엔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전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